

“나눔 통해 아이들의 미래 응원하고자”

●지명규 레파스 베이커스 대표

지역 제과 프랜차이즈 운영...장애인 강의·푸드뱅크 기부
초록우산 멘토아카데미 참여...“꿈 개척하는 용기 얻기를”

“나눔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하고, 저를 거울 삼아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명규(33·사진) 레파스 베이커스 대표는 프랜차이즈 컨설팅과 함께 ‘파운데이’, (쥬다작 등 프랜차이즈와 제과·제빵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레파스 베이커스는 광주 서구 마례동에 위치한 제과점으로 올해 문을 열고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판매 중이다.

앞서 지 대표는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학사와 경영학과 박사를 졸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사업에도 열정을 쏟아 2대 중반 시절 10명의 강

사와 함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요리 강의를 했다.

당시 지 대표는 강사 대부분이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방학 기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제과·제빵 공장(쥬다작)을 설립했으며, 납품 등을 위해 ‘늘팡’이라는 베이커리카페도 창업했다.

현재 쥬다작에서는 매일 1만5천여개의 빵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 대표는 5월 “늘팡을 개소한 후 코로나19가 터져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생각해 ‘파운데이’라는 제과 브랜드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푸드뱅크에 2억여원 상당의 빵을 전달했다.

또 2012년부터 10년간 지역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조리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장애 아동들은 사고 위험이나 변수가 많다 보니 강사가 없어 이들을 돕기 위해 강의를 시작했다”며 “아동들이 편식을 많이 하는데 직접 음식을 만들고 이를 맛보게 함으로써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는 다른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이하 제단)와 연을 맺은 지 대표는 그린리더클럽에 가입해

올해 7월까지 약 14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또 2년째 제단의 멘토링 사업인 ‘멘토 아카데미’에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그는 “바쁘지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선행은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저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개최한 ‘2024 한국음식관광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지 대표는 사업 확장·안정화와 더불어 지역 내 어려운 환경의 아동을 위한 도움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명규 대표는 “나눔을 통해 아동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 더불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웃었다. /주성학기자



나주경찰, 전 직원 참석 확대간부회의

나주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서장, 과·계장, 지·파출소장 등 경감급 이상 전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주제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경찰 수사 ▲예방중심 경찰활동 및 상황관리 ▲사회적약자 보호 ▲인사제도 개선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 총 4건의 핵심과제를 나주경찰 전 직원이 공유해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시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고, 경찰의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경찰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주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정준환기자



광주경찰 암행순찰대, 대형차 사고 예방 주력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는 “최근 대형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청 암행순찰대는 특히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 위반 및 횡단보도 주변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차량 교통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해남경찰,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

해남경찰서는 5일 “전남 해남군 동초중학교 교문 앞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안형주 해남경찰서장, 이자영 해남교육장을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어깨띠를 하고 어린이 안전보호 홍보물을 나눠주는 한편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며 해남군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라는 인식 아래 안전운전을 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광주아이돌봄광역센터 ‘수기 공모전’ 시상식

광주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5일 “지난 3일 센터에서 ‘2024 다가치키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와 일가정 양립 사례’를 주제로 지난 7월8일-8월28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돌봄비, 연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주제 적합성, 창의성·진성성, 구성 및 문자 표현력, 메시지 전달력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돌봄상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아이돌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우

리 선생님’을 주제로 출품한 북구 이용자 문예린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조향옥 돌봄비(‘행복을 주는 우리 아이들!’, 오현주 돌봄비(‘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용자 전현진씨(아이돌봄 서비스로 찾은 새로운 가족의 희망)와 유진희 종사자(‘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누군가에게는 희망을’)가, 돌봄상은 박효란·최현철·김연자·윤나라 선종숙씨가 뽑혔다.

박급자 센터장은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함께 돌봄’, ‘돌봄 민주주의’, ‘다가치 돌봄’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돌봄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전남도-日 고치현, 임업 기술·정보 교류 강화

전남도는 5일 “일본 고치현 임업진흥·환경부 관계자들이 전남까지 4일간 전남을 방문, 전남도 산림연구원과 완도수목원 등을 둘러 임업 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고치현 방문단은 다케자키 마코토 임업진흥부 부부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나주지역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전남도 산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들과 간담회 후 민간 정원을 둘러봤다. 이어 북포로 아동해 편백스토리과 공생원을 들른 후 전남도와 임업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완도수목원도 살

펴봤다. 고치현은 인구 약 60만명, 면적 7천103.91㎢로 일본의 주요 임업 지역 중 한 곳이다. 삼나무와 같은 임산물 생산이 활발하며 특히 산지율이 89%에 달해 임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와 고치현은 2018년 자매결연을 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신원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남도와 고치현 간 교류가 더욱 강화되고 양 지역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산가족센터, 이주여성 11명 영양보호사 자격 취득

광주 광산구 가족센터는 5일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11명(중국 6명·베트남 5명)이 지난 3일 실시된 영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가족센터는 광주시 최초로 국비와 시비 보조로 호남간호영양보호사교육원과 연계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물론 노인 돌봄, 응급처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은미 센터장은 “광산구 여성 세일센터와 협력해 앞으로도 노인 영양시설, 제과 영양서비스 등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장흥경찰, 교통사고 조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장흥경찰서는 “최근 국도 2호선(장흥읍-부산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에는 장흥군, 순천국도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등이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교통안전 활동의 일환이다.

장흥경찰서는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진단, 장흥·순천국도 시설 개선 점검, 전남자동차미래고등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장기 대책과 함께 이동식 카메라를 증설하는 단기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흥=노형록기자

목포경찰, ‘딤페이크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목포경찰서는 5일 “목포 문태중·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딤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성일상지킴이 회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딤페이크 성범죄 일상을 침해하는 중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딤페이크 예방 홍보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 배포에 범죄 경각심을 고취했다.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등교 시간을 활용한 집중 캠페인 등을 펼쳐는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준희기자

